



PK 실축... 울다 웃은 호날두



자신의 유럽축구선수권대회 고별 무대인 유로 2024 16강전에서 포르투갈 축구 대표팀의 캡틴인 세계적인 축구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9살)는 자욕과 천당을 오가는 극적인 상황을 겪었다. 이번 시즌 사우디아라비아 프로리그 득점왕(35골)에 오르며 녹슬지 않은 기량을 과시하던 호날두는 2일(한국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프랑크푸르트아레나에서 열린 슬로베니아와의 유로 2024 16강전에서 0-0으로 팽팽하던 연장 전반 막판 절호의 페널티킥을 실축하며 고개를 떨궜다.

공률이 매우 높은 선수로 정평이 나 있지만 이날 페널티킥 기회를 놓치면서 하마터면 탈락의 원흉으로 지목될 뻔했다. 페널티킥을 실축한 뒤 눈물까지 흘렸던 호날두는 대표팀 동료이자 포르투갈 GK 디오구 코스타 골키퍼에 의해 구해졌다. 호날두는 이번 대회 조별리그 3경기를 포함해 4경기에 출전했지만 무득점의 수모를 겪고 있다. 예전같은 기량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노쇠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호날두는 이번 대회에서 무려 20개의 슈팅을 날렸지만 골을 터뜨리지 못했다. 이번 대회 무득점 기록한 선수 중 가장 많은 슈팅을 기록한 호날두다.

슬로베니아전 연장 전반서 천금의 승리 기회 놓쳐 이번 경기 4경기서 20차례 슈팅했지만 무득점 수모 승부차기서 골키퍼 선방 덕에 8강 티켓... 佛과 격돌

골문 오른쪽 구석을 노린 호날두의 슈팅은 몸을 날린 슬로베니아의 GK 안 오블라크(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손끝에 스친 뒤 오른쪽 골포스트를 맞고 나갔다. 개인 통산 6번째 유로 대회를 치르는 호날두는 4경기 동안 36분을 소화하면서 20차례의 슈팅을 시도했지만 골세리머니를 펼치지 못했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6위 포르투갈은 이날 57위 슬로베니아 상대로 고전을 면치 못했다. 포르투갈은 슬로베니아를 상대로 연장전 후반까지 볼 점유율에서 68대 32로 크게 앞서며 20개의 슈팅을 쏟아냈지만 득점에 실패했다. 특히 A매치 역대 최다골(130골)을 자랑하는 호날두는 페널티킥 성

전후반과 연장전까지 120분의 혈투 끝에 이어진 승부차기에 들어가면서 포르투갈은 2016년 대회 우승 이후 8년 만에 왕좌 탈환 도전이 무산될 위기에 몰렸다. 코스타는 슬로베니아의 1-3번 키커의 슈팅을 모두 막아내는 놀라운 선방쇼를 펼쳤다. 반면에 포르투갈은 1번 키커 호날두를 포함해 3명이 모두 킥을 성공시키졌다. 3-0으로 승부가 결정되면서 8강 티켓을 품에 안았다. 포르투갈은 6일 오전 4시 독일 함부르크의 폴크스파르크스슈타디온에서 FIFA 랭킹 29위 프랑스와 8강전을 치른다. 유로2024의 빅 매치다.

박병현 기자 bhpark@skyedaily.com



'재계약' 보스턴 테이텀 5년 4347억... 역대 최고

팀 통산 18번째 우승 주역 팀 동료 브라운 몸값 추월

2023~24시즌 미국프로농구(NBA) 보스턴 셀틱스를 정상에 올려놓은 포워드 제이슨 테이텀(사진)이 NBA 역대 최고액 계약으로 대박을 터뜨렸다. 미국의 스포츠전문 매체 ESPN은 2일(한국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테이텀이 5년간 3억1400만 달러(약 4347억 원)를 받는 조건으로 보스턴과 재계약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계약에는 1년 뒤 선수가 팀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다른 팀으로 이적할 때 재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AP 통신은 테이텀의 계약은 2023~24시즌을 앞두고 팀 동료인 제일린 브라운이 계약한 5년 최대 3억 400만 달러를 능가하는 NBA 역대 최고액이라고 밝혔다. 26세의 테이텀은 2023~24시즌 달러스 매버릭스와의 챔피언결정전에서 평균 22.2점, 7.8 리바운드, 7.2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보스턴의 통산 18번째 우승을 이끌었다. 2017년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 보스턴 유니폼을 입은 테이텀은 NBA 정상급 선수로 성장했다. NBA 올스타에 5차례 뽑힌 테이텀은 2021년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미국 농구대표팀의 일원이었으며, 이달 개막하는 파리올림픽에도 출전한다. 테이텀의 계약 소식은 같은 날 팀 동료 데릭 화이트가 4년간 1억2600만 달러의 연장 계약에 합의했다는 소식과 함께 전해졌다. 이에 따라 주전 선수들이 테이텀, 브라운, 화이트, 즈루 홀리데이, 크리스탑스 포르진스키 모두가 계약이 완료돼 보스턴은 최소 2025~26시즌까지 우승 멤버들을 보유할 수 있다.

박병현 기자 bhpark@skyedaily.com

문체부 “지방체육회·종목 단체 예산 직접 집행”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방 체육회와 종목 단체에 예산을 직접 집행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문체부는 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 회의실에서 유인촌 장관 주재로 체육 분야 간담회를 열어 2024 파리올림픽패럴림픽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체육계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0일 대한배구협회·여자배구 국가대표 은퇴선수 간담회에서 “대한체육회 중심의 체육 시스템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예산 지원 체계 개편의 불을 지핀 유 장관은 “체육계의 근본적인 개선과 개혁이 필요하다”고 기존의 태도를 고수했다. 체육 정책을 둘러싸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지난해부터 마찰을 빚어 온 유 장관은 “체육회가 문체부를 상대로는 자율성을 외치는데 (산하) 회원 종목단체와 지방 체육회의 자율성에는 반대하는 것 같다”고 뼈 있는 한마디를 남겼다. 이어 “체육계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 중 하나로 예산 직접 교부도 있다”며 예산 직접 집행을 재차 거론했다. 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은 “현재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으로 회원종목단체, 지방체육회 등의 구분을 고려해 세밀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매년 5월 30일자로 정부 예산안을 기재부에 제출하고, 정부 예산안은 8월 말에 확정된다”면서 파리올림픽 이후 구체적인 집행 계획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이 국장은 “그간 한국 체육이 잘 나갔다

면 굳이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없다”면서 “현재 우리 체육이 위기를 겪고 있으므로 정부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 예산 편성권으로 한국 체육이 도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예산 직접 집행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한국 체육 발전을 위해 정부가 나서지 않아 4년 후, 8년 후 올림픽에서 문체가 생긴다면 이는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결국 대한체육회를 제쳐두고 지방체육회



유인촌(오른쪽) 문화체육부 장관이 2일 정미란 제2차관을 배석시킨 가운데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체육분야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와 회원종목단체에 직접 예산을 주겠다는 문체부의 구상은 생활 체육 활성화와 한국 엘리트 체육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스키아데탈리·연합뉴스

WANNA RISE?

ALCOBAÇA Stream
DOUBLE WAVE



WANNA SPIN?

Ray SX-ZERO



RomaRo

(주)유니스골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189-5 인스코빌딩 문의전화 031)726-0085